

HONG KONG
C H I N A
I N D I A
K O R E A

Objets

10

ABC CERTIFIED
KOREA ADVERTISING BUREAU OF
CIRCULATIONS

국내 유통의 발행부수 공인 멤버십 잡지

Dior



**당신은 참견쟁이?
아니면 호기심쟁이?**

묵묵한 돌덩이가 개인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를 탐구한 스위스 설치 작가 우고 론디노네의 개인전 <Feelings>가 10월 11일까지 국제갤러리 K3 전시관에서 열린다. 3m 높이의 석상 5개로 이루어진 이번 작품은 2년 전 뉴욕 록펠러센터 광장에 전시한 청석 조각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국을 찾은 작가는 '참견쟁이', '변태', '관찰자', '호기심쟁이' 그리고 '순종자'라는 이름을 붙인 청석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거칠고 딱딱한 청석에 인간의 감정을 표현해 상상력을 자극하고 싶습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이 각자 직접 만져보고 살펴보면서 감정을 대입할 수 있도록 결말을 열어두었죠." 원재료에 가까울 정도로 투박한 돌조각에는 작가가 각인한 몇 가지 단서만 있을 뿐 뚜렷한 해답은 없다. 청석 조각은 개인이 저마다 느끼는 감동과 영감 속에서 각각의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문의 735-8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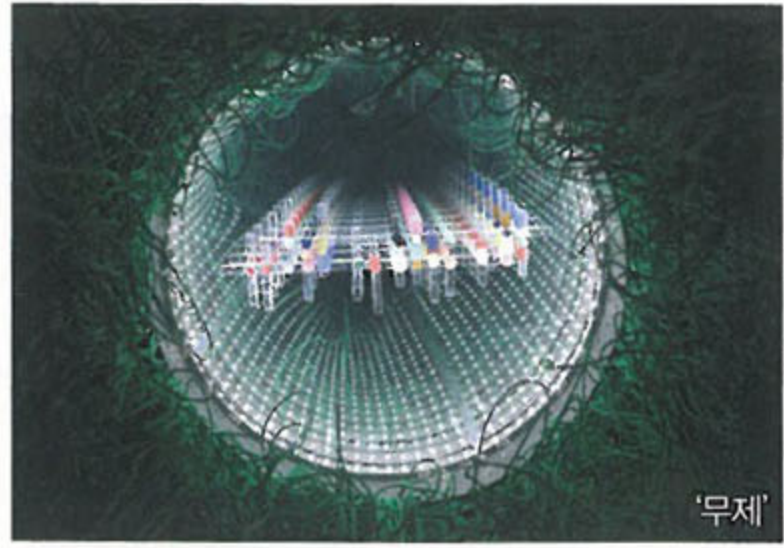
우고 론디노네와 국제갤러리 전시 전경

지금 다대포해수욕장에서선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2015 바다미술제'의 기자간담회가 지난 8월 20일 웨스틴 조선 호텔 서울에서 열렸다. 바다미술제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바다를 활용하는 부산 미술계의 독자적 축제. 1987년 시작해 1996년까지 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리다 2000년부터 10년간 부산비엔날레에서 통합 개최했고, 2011년부터는 부산비엔날레에서 분리돼 홀수 해마다 부산 곳곳의 해수욕장에서 독립적으로 열리고 있다. 올해 바다미술제는 '보다-바다와 씨앗(See-Sea & Seed)'을 주제로 총 36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20대의 영국 출신 작가 존 포먼부터 1980대의 오노 요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장르의 국내외 작가가 참여한다. 기자간담회에서 임동락 집행위원장은 "이번 바다미술제는 서부산 지역의 낙후된 문화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김성호 전시감독은 "모든 작가를 공모가 아닌 초청으로 섭외해 일관성 있는 전시를 추구했다"며 전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광활한 해변을 압도할 수 있는 설치와 퍼포먼스 등의 작품과 다대포해수욕장의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올해 바다미술제가 더 큰 축제로 도약하길 응원한다. 문의 051-503-6111



스페텐 올랜드, '파란색, 자주색, 하얀색 카약'



Courtesy of the artist and PKM Gallery

이불은 언제나 현재진행형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경계에서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이불의 개인전이 PKM갤러리에서 9월 25일까지 열렸다.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현대차 시리즈' 전시에서 초대형 작품을, 올해 8월 <디올 정신>전에서 향수 '미스 디올'을 주제로 한 작품 '셀마'를 선보이긴 했지만 한국의 갤러리 전시는 5년 만이다. 전시에서는 신작 조각과 드로잉 등 10여 점의 작품을 공개했다. 특히 전시장을 방문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천장에 상들리에처럼 매달린 '무제' 작품. 얼핏 바닷속을 부유하는 해파리 떼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거울의 무한 중첩 이미지로 거대한 공간감을 형성하는 설치 작업 '인피니티(Infinity)' 시리즈와 같은 개념에서 출발했다. 그 아래에 서서 작품을 올려다보면 한층 강렬한 빛을 발산한다. 10월에도 그녀의 작품을 세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캐나다 밴쿠버 갤러리에서 개인 순회전을, 파리의 팔레 드 도쿄에서 프로젝트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술이 된 일상

'미술 작품이 전시장의 흰 벽에만 걸려 있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할까?' 성북동에 있는 복합 문화 공간 아트스페이스벤(Art Space Ben)에서 열리는 특별전 <Art & Life>(10월 13일~12월 10일)는 이런 질문에서 출발했다. 전시 제목처럼 일반 관람객이 미술을 일상에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 올해로 3회를 맞았다. 이번 전시는 최고급 명품 가구와 고품격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에이스 에비뉴와 협업해 더욱 눈길을 끈다. 아트스페이스벤의 박은숙 대표는 한국과 해외의 국제 아트 페어를 방문하며 전시를 위한 작가를 직접 선정했다. 권용래, 김인숙, 박승훈, 선 팍, 오병재, 베르나르 브네(Bernar Venet) 등의 작품이 에이스 에비뉴에서 엄선한 명품 가구 브랜드인 알플렉스(Arflex), 박스터(Baxter), 리바1920(Riva 1920) 등의 가구와 어우러져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과학적 실험을 통해 비가시적 요소를 시각화하는 로랑 그라스의 실크스크린 작품 'Retroprojection'이, 디자이너 테리 돈(Terry Dawn)이 원목을 유기적 형태로 변형해 완성한 'Maui 암체어(리바1920)'와 랑데부한 장면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예술이 된 일상'을 삶의 모토로 추구하는 독자라면 전시장을 꼭 방문해보자.

문의 742-0788(아트스페이스벤), 541-1001(에이스 에비뉴)



로랑 그라스의 작품(왼쪽)과 테리 돈의 가구(오른쪽)